



서울시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김해수 실장

그는 강조했다.

“서울시가 현재 추산하는 노숙인은 약 3,000여 명 정도예요. 이 중 거리 노숙인은 약 600~700명에 불과하죠. 특히 늘 알코올에 찌들어있고 지저분하며 병든 노숙인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노숙인의 전형으로 잘못 알고 있어 안타까워요.”

김 실장에 따르면, 실제 노숙인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거리 노숙인은 물론, 쉼터, 상담보호센터 혹은 쪽방이나 고시원, 사우나 등 안정되지 않은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서울시 노숙인 시설의 누적 이용자가 약 3만명에 이른다”며 “결국 서울시민 대략 1,000명 중 3명은 노숙인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숙인의 범위가 넓음에도 노숙인 복지 하면 거리 노숙인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사고를 벗어나야 진정 노숙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노숙자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다. 가장 먼저 지저분해야 할 것이다. 때 자국이 흐르는 얼굴과 굉장히 지저분한 머리와 수염, 그리고 한 달 동안 빨지 않고 입은 듯한 옷까지. 또한 날도 잘 맞추어야 했다. 될 수 있으면 추운 겨울날이 좋겠다 싶었다.”

신문편집실습 기말과제로 노숙자 취재를 하게 됐다는 한 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노숙인에 대한 이미지는 과연 어떠한가? 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김해수 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의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굴절돼 있다. 상당 부분은 언론매체가 만들어낸 편견이다.”

이처럼 가치 절하되어 있는 노숙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 것이 노숙인 복지의 첫 걸음이라고

빈곤 전문가, 외환 위기로 노숙인 문제 불거지면서 투신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매우 짧은 노숙인 복지 분야에서 올해로 경력 8년째를 맞고 있는 노숙인 복지 전문가다. 숭실대 87학번. 대학 졸업 후 YMCA 등에서 활동가로 활약하다 외환위기를 맞아 노숙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투신한 열성파다.

“대학시절 데모를 하면서 사회정의와 빈곤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로 많은 사람

황무지서 노숙인 복지 역사 개척하는 복지 일꾼 사회에서 냉대받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글·사진 배현정 객원기자



들이 거리로 내몰렸을 때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지요.”

노숙인 복지는 빈곤, 실업, 가정 해체 등 소외된 사람들의 욕구가 적나라하게 엮여 있는 영역이다. 이것이 김 실장이 노숙인 복지에 투신한 이유이자 자부심이다.

그 말처럼 센터의 업무는 무궁무진하다. 1998년 개소한 센터는 빈곤과 사회적 소외로 거리에 내몰린 노숙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이에 따라 운영하는 상담보호센터에서는 오전 9시부터 6시 까지 취업, 의료, 수급 상담 등의 주간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후 야간에는 노숙인들에게 응급 잠자리와 목욕, 세탁 등의 기초편의를 제공한다. 야간 서비스 이용 인원이 하루 170명, 주간 서비스까지 합하면 일 평균 25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주·야간·심야에 이르는 거리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무료 급식과 진료소 운영,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와 특별자활근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보다 효율적인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도 센터의 주요 업무다.

김 실장은 “초창기에는 거리 노숙인 문제가 심각해 쉼터를 통해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주거 뿐 아니라 일자리, 의료, 심리적 차원에서 의욕구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인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복지는 그래서 갈수록 전문화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예컨대 거리 노숙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학력, 불우한 성장 배경, 저기술 등 빈곤으로 직결되는 위험 요인을 다수 가지고 힘겹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실직이나 가정해체 등의 사건으로 노숙인으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

로 복귀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다고 한다.

“많은 노숙인들은 오랫동안 사회 주변부에서 냉대 받으며 살아왔기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식의 생활에서 학습된 무기력이 팽배합니다. 사실 ‘하늘의 별’을 보며 잠들어야 하는 노숙 환경에서 희망을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은 바로 이러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전략 중 하나다. 미국의 빈민교육 활동가인 얼 쇼리스의 ‘클레멘테 인문학 과정’을 벤치마킹한 것. 철학, 문화, 글쓰기, 역사, 문학 등의 토론식 수업을 바탕으로 재할 의지와 자존감을 복돋워주는 것이 목표다. 1,2학기 각 15주(화, 목, 금 오후 4~6시)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어려운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불과 1년 여가 지난 지금, 벌써부터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졸업식을 가진 1기 수료생의 경우, 21명의 입학생 가운데 3명이 교육 과정중 운송회사, 출판사, 시민단체 등에 취업해 나갔고, 5명의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13명의 졸업생 모두가 현재 다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동시에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성찰적 사고를 통해 가족에서 이웃과 사회로 나아가는 삶의 기술을 터득하게 된 것”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한다.



노숙인 연극단 ‘징검다리’의 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간 삶의 상처로 인해 원활한 인간 관계를 맺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연극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고, 역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숙인 복지의 경우 역사가 짧은 만큼국내의 선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주로 외국의 홈 리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죠. 노숙인 복지를 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중 하나가 이처럼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이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이끌어냈을 때지요.”

열악한 처우지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복지 분야 개척에 자긍심

새롭게 개척해가는 분야인 만큼 궁지 만큼, 고생이 적지 않다. 열악한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종종 현장 사회복지사들을 번 아웃으로 몰고 간다.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실무자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하는 노숙인 현황부터가 크게 잘 못되어 있죠.”

현장 실무자들이 파악하는 노숙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공식 발표는 이와 다를 때가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나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 가면 현황 파악이 거의 되지않고 있다. 지난해 노숙인 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예산 투여를 기피하면서 “우리 지자체엔 노숙인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답답한 현실인 것이다. 이렇듯 정확한 노숙인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니 현실적 보호 체계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당연하다.

쉼터나 상담보호센터의 주거 공간은 부족하고, 시설은 낙후됐으며, 자활사업은 임시 사업 성격이 강해 장기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노숙의 장기화로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숙인 의료 구호비 부족 문제도 발생

하고 있다.

2002년께는 서울시에 책정된 의료 구호비가 조기에 소진돼 가슴 앓이를 했다. 당장 노숙인들이 질병으로 생사를 오가는데 의료 도움을 줄 수 없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현장 실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탈 수 밖에 없었다.

노숙인 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도 전문 인력의 양성에 큰 걸림돌이다. 노숙인 복지 종사들은 각종 수당

및 보너스 없이 기본급만 지원 받기 때문에 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때문에 유능한 인력 영입이 힘들 뿐더러 실무자의 손실도 막기 어렵다.

이처럼 난관이 많지만, 노숙인들이 쉼터 등의지원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접할 때면 새로운 힘이 솟는다. 요즘은 서울역 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특히 더 바쁘고 설레는 일이 많다. 당장 12월 18일에는 이를 위한 노숙인 연극단 ‘징검다리’ 공연이 예정돼 있고, 연말 문화콘서트 등 추후 관련 기념마련을 위한 각종 행사들을 준비중이다.

김 실장은 최근 개인적으로는 노숙인들의 정신 보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거리 노숙인의 약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전문 아웃리치 실무자가 부재하다”며 “직접 정신보건 사회복지를 공부해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에는 현재 기획 등 대외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김 실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종사가 있다. 이중 70%는 사회복지사이며, 이외 사람들도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 중이다.

“노숙인 복지는 여러 복지 영역 중에서도 ‘마이너리티’에 속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다 이내 관심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자부심도 큼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꿈과 희망을 잃은 분들에게, 적은 도움이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 아주 의미있는 일이니까요.”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 사회복지사라면 노숙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당부했다. ■